

함평 잠월미술관 마을 미술 프로젝트

문화가 숨쉬는 산내리의 여름

“아, 아, 이장입니다. 눈이나 발에... 계시는 산내리 주민 여러분, 오늘은 미술관에서 재미난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 손발을 깨끗이 씻고 모여주시지요.”

24일 오후 4시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18가구 2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시골의 한적한 마을 들녘에...

“마을 잔치-산내리의 여름”은 이광연(51) 이장과 박연숙 작가가 한 달 동안 공동 진행하는 ‘산내리 방송국’의 개국 방송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아침부터 마을 회관 앞 정자에 모인 할머니들은 “비가 오니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 “아니다, 비는 안 온다”며 ‘신경통 낫치 예보’를 주고받았다.

주민들은 마을 방송을 들으며 10여 년 동안 비어있던 ‘고장터 집’으로 모여들었다. 이주희 작가와 함께 알록달록한 ‘한송 풍선’을 불어 빈집을 꾸미는 작품을 공동창작하기 위해서다.

마을 방송국 개국 야외 영화상영 등 즐거운 문화 행사

주는 행사. 풍선을 불면서 마음속 ‘한숨’을 날려버리자는 의미이다.

주민들과 이날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마을을 찾은 20여 명의 외국인들이 ‘한송 풍선’을 집안 곳곳에 붙이자 먼저 자욱했던 빈집이 금세 색색의 풍선으로 가득 찼다.

주민 임길순(여·68)씨는 “일 안 하는 날에는 고스톱만 쳤는데, 미술관에서서 짧은 작가들과 작품을 만들어 보니 너무 재밌다”면서 “낯선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도 그려져 마을이 새색시 마냥 예뻐졌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명현철 작가가 선을 긋고, 곱게 색칠해 놓은 윷판, 미로찾기판, 사방치기판에서 ‘공터 마당놀이’를 즐긴 뒤 미술관으로 이동했다.

미술관 뒤뜰 응달에서는 할머니들이 도예가들의 지도를 받아 지난주에 빚은 문패, 컵, 소주잔 등이 모처럼 갓 낱씨에 말라가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일부러 미술관으로 구경은 관람객들을 위해 직접 요리한 파전과 막걸리를 내왔다.

또 김현덕 작가는 재즈 음악에 맞춰 춤에 드로잉을 한 뒤 염색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인디밴드 ‘순이네 담벼락’의 공연도 곁들여졌다.

어둑어둑해지자 미술관 앞은 야외 영화관으로 변했다. 평소 극장에 가기 힘들었던 주민들을 위해 찰리 채플린 주연의 영화 ‘KIDS’가 상영됐고,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동작에 주민들은 웃음보를 터뜨렸다.

잠월미술관 정선희 큐레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 달 동안 작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예술작품으로 꾸미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kroh@kwangju.co.kr



지난 25일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서 열린 ‘마을 잔치-산내리의 여름’ 행사에서 마을 주민들이 ‘한송 풍선’(위)을 불고, 아기가자기한 염서를 직접 만들고 있다.



박진현의 문화카피

‘광주비엔날레 키드’가 떴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블루닷 아시아 2009’전을 다녀온 서양화가 K씨는 작품은 충격을 받았다.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자리에 지역작가들이 ‘주연’으로 참여해 광주미술의 우수성을 과시한 것이다.

‘블루닷 아시아’는 아트페어와 비엔날레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개막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판매만을 위해 작품들을 무미건조하게 나열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작품을 배치한 독특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관 전관을 돌아보면서 K씨는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서울, 부산 등 타 지역 작가들에 비해 뛰어난 작품성 때문이었다.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광주작가들의 작품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요즘 대규모 현대미술 기획전을 가 본 미술애호가라면 K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미술’ 하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작가나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갤러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독무대였다. 때문에 국내화단을 쥐락펴락하는 큐레이터들은 한동안 국제 아트페어나 비엔날레에 서울 작가들을 앞세우고 다녔다.

하지만 근래 이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다른 이념 ‘광주비엔날레 키드(Biennale Kid)’들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섬장한’ 지역작가들이 국내 외 무대에서 ‘미술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하나가 지역작가 육성이었다. 7회째 대회를 치른 비엔날레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광주작가들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광주비엔날레 키드들의 활약상을 보면 비엔날레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비엔날레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비엔날레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유럽영화 거장의 작품 감상하세요”

광주극장 ‘언노운 우먼’ 등 3편 상영

거장들이 메가폰을 잡은 유럽영화 세편이 오는 8월 5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시네마 천국’으로 유명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과 엔리코 모리코네가 함께 작업한 이탈리아 영화 ‘언노운 우먼’(Unknown woman)은 한여름밤에 어울리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간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번이나 수상한 뿔기에 다른 형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로나의 침묵’은 2008 칸 영화제 각본상과 프랑스 영화잡지 ‘까이에 뒤 시네마’ 독자들이 선정, ‘2008년 최고의 영화’로 꼽힌 수작이다.



로나의 침묵

그밖에 뛰어난 예술작품을 남겼지만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여류화가 세라핀 루이(1864~1942)의 삶과 작품 세계를 그린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세라핀’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mekim@kwangju.co.kr

최명희 ‘혼불’ 4년 만에 재출간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대하소설 ‘혼불’이 절판 4년 만에 재출간됐다. 작가의 동생 윤범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도서출판 매안은 ‘혼불’을 전 5부·10권으로 다시 냈다.

1930~40년대 남원을 배경으로 몰락하는 종가(宗家)를 지키려는 종부(宗婦) 3대의 이야기를 담은 ‘혼불’은 1996년 한길사를 통해 전 10권으로 완간됐으며, 14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매안은 그간 책으로 나오지 않았던 최명희의 단편 30여 편을 묶어 내년에 출간하는 것을 비롯해 산문집, 강연록 등 작가의 저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bigkim@kwangju.co.kr

문인호씨 시집 ‘아름다운 고독’ 출간

장흥 출신 시인 문인호(65·광주시문인협회 사무국장)씨가 자신의 여섯 번째 시집 ‘아름다운 고독’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에서 문씨는 ‘일탈을 꿈꾸는 아침’ 등 삶에 대한 진지함과 자기 성찰을 통한 세상보기를 주제로 한 100여 편의 시를 4부로 나눠 엮었다.

문씨는 “소외의 고독이 아닌 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리움의 고독을 소재로 긍정의 시각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1991년 ‘동양문학’에 시로 등단했으며 국제 PEN클럽, 무등문화회, 문학춘추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One' hair salon, featuring a large '50' and '7월 31일까지 만원~' (7/31 until 10,000 won) promotion.

Advertisement for 'The One' hair salon,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제혼 12년 회원수 1위' (12 years since divorce, #1 in membership).